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연구*

A Study on Eco Trail Planning in Bukhansan National Park

한봉호¹ · 최진우² · 유기준³ · 노태환⁴

¹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²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 ³상지대학교 관광학부

⁴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서론

최근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새로운 유형의 걷기 문화가 창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에서도 정상 정복형 수직탐방 행태를 개선하여 다양한 숲 생태 및 문화 등의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수평적 탐방으로 산행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조성된 지리산 둘레길과 2009년 예약제로 개방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이용사례로 볼 때,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의 생태, 문화, 경관을 테마로 조성된 탐방로가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탐방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진산으로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성곽 및 사찰 등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하여 수도권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국립공원이다. 2007년 입장료 폐지후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민을 중심으로 연인원 평균 1,000만 명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서울시 권역 저지대를 중심으로 샛길이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체육시설지 및 배드민턴장이 산재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국립공원 중에서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이용행태와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관리 해야 되는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다.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등지의 북한산국립공원 가장 자리에는 군부대가 주로 입지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가 관통되어 탐방객의 접근성 및 저지대 활용성이 제한되어 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둘레길 노선 선정 및 정비를 통해 저지대의 무분별한 샛길 및 체육시설지를 폐쇄 및 복원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저지대 둘레길 조성은 장기적으로 정상 정복형 수직탐방행태의 탐방객을 저지대로 이용 분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본 계획을 통해 계룡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 인접형 국립공원의 탐방문화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저지대에서 북한산의 자연생태, 경관,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주제 탐방로를 조성하고, 둘레길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공원 주변 마을 상가의 균형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경계부 둘레 약 63.2km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둘레길 노선 선정 및 현황분석, 둘레길 이용 수요 조사·분석, 둘레길 조성구상으로 진행하였다.

둘레길 노선 선정 및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둘레길 노선 선정기준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공원 경계부 주변 정규탐방로, 샛길, 마을길, 도로내 보도, 도로 등 노선 유형 분포 조사와 노면유형, 폭, 경사, 훼손정도, 환경피해도 등급 조사(권태호 등, 1988)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노선의 공원 구역 및 토지소유현황 조사, 역사문화 자원 조사,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둘레길에 적용할 수 있는 탐방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레길 이용 수요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서울시민(300부),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120부), 주변 지역주민(106부)을 대상으로 폐쇄형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법과 전화면

* 본 연구는 2009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세 집단 모두 둘레길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저지대 수평적 탐방로 개념인 둘레길 조성에 따른 정상지향형의 등반형태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5점 척도상 3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여 등산패턴의 전환의사를 나타냈으며 특히, 서울시민 응답자 집단의 경우 가장 높은 이용 전환의사를 보였다.

둘레길 조성에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의 중요 정도에 대한 응답자 집단간 차이는 자연자원 보전과 주변과의 경관조화 원칙 적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검증되었다. 각 집단은 둘레길 조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연자원 보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특히 서울시민들이 둘레길 조성에 있어 자원보전 노력에 가장 강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울시민 응답자 집단은 주변과의 경관조화 유지 원칙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용편의 측면에서는 각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둘레길 조성원칙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

내용	집단구분	평균값	F값	유의확률
자연자원 보전	탐방객	4.01	4.615	0.010**
	지역주민	4.11		
	탐방객	4.27		
경관조화	탐방객	3.92	3.474	0.032*
	지역주민	3.99		
	서울시민	4.17		
이용편의	탐방객	3.90	1.670	0.189
	지역주민	3.99		
	서울시민	3.77		

둘레길에 도입 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안전시설, 관리시설, 휴양체육시설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안전시설과 관리시설의 경우 세 집단 중 서울시민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휴양체육 시설은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있어 적정규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적정 길이와 적정 탐방시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적정 길이 항목에서만 집단 간 인식의

차가 나타났다. 서울시민 집단의 경우 다른 응답 집단에 비해 전체적인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긴 길이의 둘레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둘레길 조성 계획구상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전체 노선 63,171m는 일반 성인이 중주하는데 4~5일간 소요되는 길이므로 적절한 구간을 구분하여 계획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레길 계획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적정 소요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보통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 3~4시간(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 2003)임을 고려하여 보통 성인이 천천히 걷는 속도를 고려하여 5~8km 길이를 반영하였다.

둘레길 계획구간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요 탐방지원센터 및 공원지킴터와 대중교통체계를 고려하고 도시민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 주변 이용압력을 고려하여 11개 계획구간을 구분하였다. 계획구간에 적합한 테마탐방로를 설정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다른 유사한 자연생태, 역사문화, 경관자원 유형 등이 분포하는 구간을 구분하였다.

국립공원 둘레길은 정상정복형 수직탐방행태를 극복하고 저지대에서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이다. 노선의 테마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는 북한산의 자연, 경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적 통로의 의미로 조성되어야 하며, 흥미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테마 탐방로로서 정비되어야 한다. 주변 지역사회 협력 및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테마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1개 구간별 구체적으로 차별성 있는 노선 테마를 설정하여 다양한 자연 및 문화 체험이 가능한 탐방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레길 노면은 탐방객의 이용만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노면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전체 구간 중에서 급경사지에 목재 데크를 조성하고 계곡 통과구간에 연결 다리를 조성해야 한다.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구간과 노약자 및 장애우가 탐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구간에는 충분한 노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립공원 둘레길 노선에서도 집중적인 이용구간과 장애인 탐방 구간은 최소 2m 노폭을 확보해야 한다. 탐방로 환경피해도 등급 5, 6 구간은 노폭을

축소하고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레길을 통한 새로운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립공원과 정상정복형 수직탐방형태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즉 북한산국립공원 저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있는 탐방시설이 일부 도입되어 탐방객의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 둘레길 주변에 설치하는 휴게 및 학습시설은 나지, 경작지 등 훼손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둘레길의 홍보와 탐방 서비스 지원은 기존의 탐방지원센터, 공원지킴터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전체 노선 63.2km, 총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28개 노선 테마를 구상하였다. 노선 테마를 관련 유형으로 정리하면 자연탐방 5개 노선(13.4km), 산림휴양 7개 노선(19.2km), 역사문화 5개 노선(9.4km), 경관조망 6개 노선(11.3km), 전원레저 2개 노선(3.2km), 마을활성화 3개 노선(6.6k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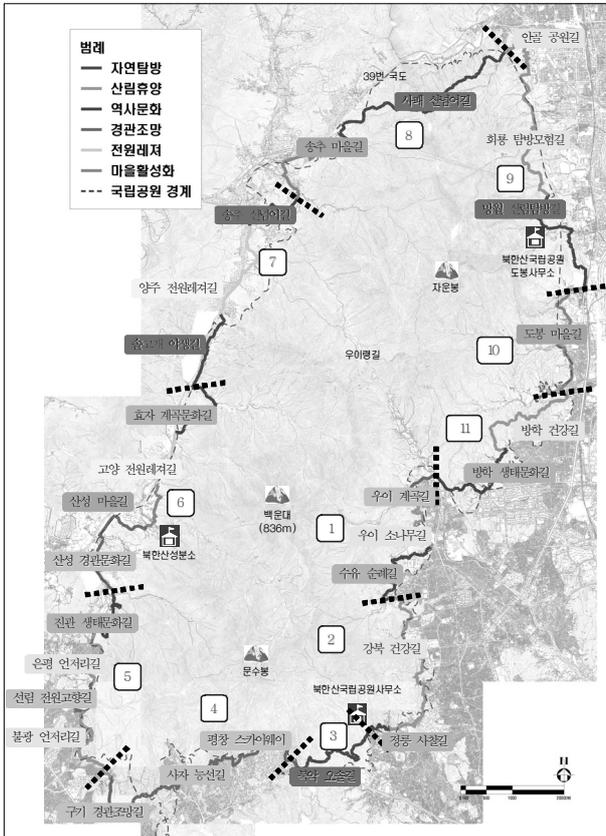


그림 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노선 테마 구상도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가장 중요한 조성 목표 중 하나는 저지대에 무분별하게 발생한 셋길과 훼손지를 폐쇄하고 복원하는데 있다. 공원구역 내부 둘레길 주변의 모든 셋길을 폐쇄하고 복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고, 아울러 공원구역 내부로 연결되는 외부의 셋길까지 폐쇄 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찰 진입로 및 이용량이 많은 일부 셋길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길의 폐쇄는 출입구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쌓기, 짚레꼇 식재 등의 적극적인 접근금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훼손이 심각한 구간은 토양 및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원구역 내부 둘레길 주변에 조성된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지, 나지, 경작지 등을 모두 철거한 후 복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훼손지는 주변 자연식생을 모델로 하여 식생을 복원하고, 일부 훼손지는 둘레길 탐방객의 쉼터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민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은 저지대에 복합 체육시설지를 대안 공간으로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지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전체 노선 중 복원이 필요한 셋길의 길이(62.1km)는 둘레길 조성 길이(63.2km)와 근사하게 파악되었다. 둘레길 주변을 대상으로 철거 및 복원이 필요한 훼손지는 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지 28,705㎡, 나지 8,919㎡, 경작지 36,816㎡ 면적이었다. 둘레길을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자연학습 및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훼손지를 활용하여 시설물을 도입해야 한다. 노선 주변에 전망대, 쉼터, 자연놀이 및 생태학습장, 야영장, 복합 체육시설지 등으로 조성되는 유형이 15,680㎡ 면적이었다.

표 3.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주변 셋길 및 훼손지 복원

	유형	면적(㎡)	길이(m)	비고
	셋길	-	62,115	-
훼손지	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	28,705	-	복합 체육시설지, 전망대 및 쉼터 활용
	나지	8,919	-	자연놀이 및 생태학습장 활용
	경작지	36,816	-	복합 체육시설지, 야영장 및 쉼터 활용
합계		74,440	62,115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전체 구간 63.2km를 동시에 조성하고 복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간을 선정 후 설계, 시공, 관라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점차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범단계 구간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구간은 저지대 도시민의 집중적인 이용으로 훼손이 심각한 구간, 도시 개발로 입주민의 북한산 이용 증가 예측에 따른 셋길 발생 우려 구간, 토지소유, 시설이용, 자연보존, 사업예산 등 이해관계 및 갈등이 우려되는 공간, 둘레길 조성 및 복원사업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시범단계 구간은 도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이령길~수유분소, 수유분소~정릉 탐방안내소 구간과 불광

동 택지개발 및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한 셋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용화1공원지킴터~삼천탐방지원센터로 선정하였다. 시범단계 17.7km 구간에 대한 둘레길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모니터링 후 시행 효과 및 오류를 검토하여 다른 구간에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인용문헌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2003)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이용행태 조사. 100쪽.

권태호, 오구균, 권영선(1988) 치악산 국립공원의 등산로 및 야영장 훼손과 주변 토양 및 식생환경의 변화. 응용생태연구 2(1): 50-65.